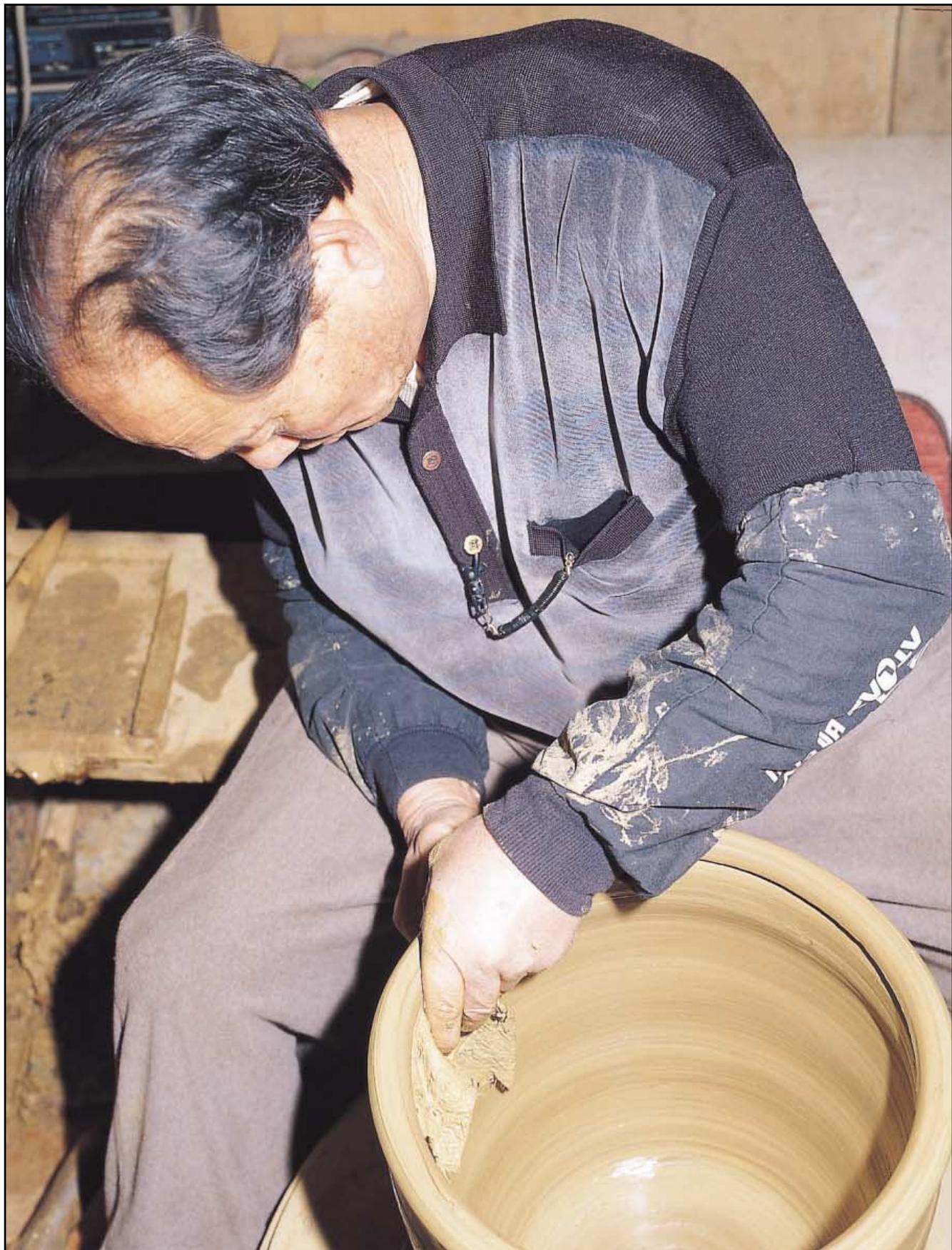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경기도음향어





7 흙에서 생명을 구하는...

응기공예 김해룡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살펴보면 집안 한 켠에는 크고 작은 향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장독대가 있으며, 넉넉한 들판에서 새잠을 즐기는 농부들 주변에 있는 그릇들과 술병들.....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응기의 옛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깻물로 유약을 발라 위생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응기는 그 투박한 모습 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서민의 애환과 함께 해왔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304
- 대중교통
안중터미널 ⇨ 현덕 · 대안리행 ⇨ 인광리
※ 번호가 없는 현덕 · 대안리행 버스입니다.
-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IC) ⇨ 39번국도
- 약도



자연을 짙어진 작은 화분

어린 시절 시골에는 집집마다 마당 한편에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다. 그 곳에는 그 집의 웬만한 세간사리가 다 모여있었는데 이를테면, 큰 독, 작은 독을 비롯하여 떡시루, 콩나물 동이, 소래기, 소주고리, 약탕기까지 옹기로 된 그릇들은 다 있었다. 다양한 종류로 치자면, 시장의 옹기전이나 진배없었다. 장독대의 옹기들은 가운데를 향해 둘러앉아 오순도순 가족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정겨워 보였다. 그런 정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옹기라고 하면 먼저 장독대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장독대가 다 있겠지만 옛날의 그 생생한 숨결의 분위기와 비긴다면 지금의 그것들은 빛이 바래고, 기운마저 쇠잔한 것 같아 쓰임은 같아도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장독대의 주인공인 옹기, 지난 시절 옹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농촌사회의 상징이었지만, 산업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를 함께 타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덩치가 너무 크고, 손잡이도 없고, 또 잘못 건드리면 일시에 부서지고 마는 것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옹고집 같은 성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옹기의 과학성, 즉 통기성(숨을 쉬는 그릇), 다양성(쓰임새가 많은 그릇), 방부성(보관이 용이한 그릇), 환원성(흙으로 돌아가는 그릇)등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다시 옹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옹기를 다시 우리의 걸음으로 불러들이는데 있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노력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 바로 인광항아리 공장에서
토화분을 만들고 있는 박해룡씨이다.



박해룡씨 가족의 옹기사랑은 그의 증조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조부 박봉진씨는 군란
(1880년경)부터 화성군(현 화성시)에서 항아리
굽는 일을 하였고, 조부 박성실과 부 박선옥씨
서는 화성군 양감으로 이동하여 계속 가업을
계승하였다. 박해룡씨는 양감에서 기술을 전수
받은 후 약 30년 전에 현덕면 인광리로 이전하여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도기 굽는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



그는 증조부 때부터 가업으로 이어오는 옹기
제조를 어릴 적부터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옹기 굽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생업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옹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옹기제조에서 현재는 토화분을
제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가 제조한
화분은 서초, 양재 화훼단지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저가인 관계로 가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는 생활에 친숙하고 어디
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릇인 옹기를 만들다

보니, 그가 구워내는 옹기에는 화려한 문양이나 오색찬란한 색깔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옹기그릇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너무나도 자연을 닮은 그릇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둥그스름한 옹기의 모습은 자연과 화합하고 융화하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게다가 그가 구워내는 것은 토화분이 아닌가? 작은 자연을 이고 있는 흙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토화분은 가장 적절한 매체가 된다고 하니 그가 만들어 낸 옹기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리라.

얕트막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가마, 그 가마에 진흙을 넣고 불과 공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산화변조 되는 옹기의 제작과정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인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옹기를 만들어 내는 동안 쏟아내는 장인의 땀과 정신만이 옹기를 굽는 원동력이 된다.

박해룡씨는 옹기장이이다. 작은 작업장에서 갈색의 흙으로 하루종일 물레를 돌리고 좀 더 나은 화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



에 편안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피와 땀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우리가 한껏 낮추어 불렀던 이런 ‘장이’ 들에 의해서 계승되어 온 것이다. 석수 혹은 석수장이, 목수, 목수장이 등 지금의 우리가 우리 것, 우리의 전통문화라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장인들에 의해서 힘들게 지켜져 왔다.

청자의 우아함과 백자의 단아함에 밀려 전통적인 우리것이면서도 이제는 보기조차 어려워진 용기를 새롭게 접근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기는 흔히 생각하는 독이라는 용기에서뿐 아니라 우리 선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물을 제공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기도 하다. 이러한 용기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현대의 과학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공적 재료들과는 달리 용기는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자연으로 돌아간다. 겸손하게 부서져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는 용기의 성질은 환경과 자연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인간의 오만을 부끄럽게 만든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자연과 더불어 숨쉬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용기의 모습이야말로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박해룡씨는 이러한 용기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려는 사람이다. 용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제작여건이 어려워져도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그의 자랑스러운 고집에 박수를 보낸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 여겨 오늘도 여전히 물레를 돌리는 그의 모습은 파괴와 군림이 성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임이 분명하다.